

# 참사 항공기 '눈물방울' 형태 착륙 이유 규명될까

**경찰, 폭발 전 조종사와 교신 나는 공항 관제탑도 압색**  
**국토부 "반대 활주로 착륙 협의"... 교신 내용은 미공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항 관제탑을 대상으로도 압수 수색에 나서 7C2216기가 '눈물방울(Tear Drop)' 형태로 비행하며 기존과 반대 활주로로 착륙한 이유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대

적으로 나선 강제수사 대상에 무안공항 관제탑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관제탑은 7C2216기가 추락·폭발하기 전 약 10분 동안 조종사와 교신을 나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7C2216기가 1차 착륙을 시도했던 오전 8시30분께 '메이

데이'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7C2216기는 관제탑과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임 어라운드(Going around-복행)"라고 교신한 뒤 곧바로 복행했다.  
복행은 활주로 주변을 약 180도 돌아 기존 활주로로 진입하는 '통상의 경로'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이륙 후 곧바로 선회한 7C2216기는 제자리에서 급격히 방향을 바꿔 기존 활주로(01) 대신 반대 방향의 19활주로로 향했다. 이 때 7C2216기는 제도가 는

물이 떨어지는 모양 같아 붙여진 이름인 'Tear Drop' 방식으로 비행하다가 총 2천500m 길이의 활주로 초입 부분이 아닌 중간 지점(추정)부터 동체 착륙을 시작했다.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탓에 7C2216기는 속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채 앞으로 질주하다 활주로 끝단 너머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토콜라이제)에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폭발, 화염에 휩싸였다.  
활주로 끝단에서 200m가량 떨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높이 2m, 두께 4m 정

도로 충돌 당시 여객기에 가해진 충격은 엄청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7C2216기의 19 활주로 착륙이 조종사와 관제탑 간 협의 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교신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정확히 분석해 결정과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참사 최초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 충돌'을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항공기 이상을 일

으킨 요인이 맞더라도 179명을 죽게 한 결정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항공기가 폭발 전 부딪힌 로컬라이저의 재질이 충격에 흡수하기 힘든 콘크리트 재질이었다는 것을 두고 지적과 의문이 잇따른 만큼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기가 무안공항 착륙 중 폭발했다. 이 참사로 승무원을 포함한 총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특별취재반=안재영 기자

## 참사 유가족들 "49재까지 분향소 운영을"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요청...추모객·봉사자 감사 인사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49재까지 만이라도 합동분향소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한식 유가족 대표는 2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타 지역 분향소를 절거해도 광주·전남 지역 분향소는 지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장례 절차를 끝내면 더 힘들어질텐데 분향소가 없다면 유가족 간 논의의 공간과 달래줄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며 "일부 유류비들이 인신공격하는 것도 유가족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가슴 찢어지는 희생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대책위원회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도 "확답할 수는 없지만, 분향소는 단체장 재량에 따라 위치·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며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4일 이후에도 지속 운영 가능성을 열어 줬다.  
박 대표는 이날 참사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에게 그간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고 이후 참담함에 경황이 없지만 우리 유가족은 사고를 당한 분들의 마지막이 조금이나마 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약의적인 표현과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즉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을 위로해 준 추모객과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박 대표는 "우리 가족의 심정은 형언할 수 없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위로와 관심 덕분에 버티고 있다"며 "거듭 애도해주시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무안국제공항 분향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의장을 차례로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대책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피해 지원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추모공원 조성 ▲유가족 긴급 생활비 지원 ▲유언비어·모욕성 게시물 강령 단속 등이다. /특별취재반=안재영·양시원 기자

## 검찰, 유가족 명예훼손·모욕 등 '무관용' 원칙 대응

경찰, 악의적 비방 등 게시물 125개 삭제 조치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경찰과 협조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상 명예훼손·모욕 등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하는 등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검정수사관 조정 등으로 직접 수사는 하지 않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등

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책본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책본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책본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악의적 비방 등 수사 중인 4건에 대해 압수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체 모니터링으로 게시물 125개를

삭제 조치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법률지원단을 꾸려 희생자·유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 게시물 등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취재반=안재영 기자



유가족 면담 마친 이재명 대표 (왼쪽)와 김영록 전남지사(가운데)가 2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 비상대책위원들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유가족 생계 지원해야"

김영록 지사, 중대본 회의서 시신 보행물 복원 등도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시무식 대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유가족 생계비 지급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무안공항 분향소로 많은 추모객이 찾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남도는 유가족 1대1 전담반을 운영해 아이 돌봄,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의사회·한의사회·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의료·심리·법률 상담과 식사·물품·숙소 지원 등 유가족이 불편할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유가족이 있으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긴급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유가족 요청에 따라 훼손이 심한 시신 보행물 복원과 사고 수습 절차를 기록한 백서 발간 등도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 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도민, 국민의 슬픔과 비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 새해가 왔지만 아직 새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무겁다"며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진정한 새해가 될 것이므로 비상한 각오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공황 관리는 국토부 소관이지만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죄인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겸손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실·국장과 함께 목포시 현충탑에 참배한 후 유가족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곧장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았다.  
앞서 전남도는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사고 희생자 애도기간'을 4일까지 1주일로 지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행사의 연기 등을 권고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합동분향소 등 지역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시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도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별취재반=김재정 기자

<p><b>광주매일신문</b></p> <p>"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p> <p>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p> <p>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p>	<p><b>구독신청 배달사고</b></p> <p>문의 <b>650-2022</b></p>	<p><b>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b>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p> <p><b>외상대금</b> <b>공사대금</b> <b>장비대금</b> <b>전세금</b> <b>부도어음</b></p> <p><b>돈</b></p> <p>받아 드립니다</p> <p><b>빌려준 돈</b> <b>투자금</b> <b>약정금</b> <b>임대료</b> <b>구상금</b></p>	<p>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p> <p>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p>
<p>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p> <p><b>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b></p> <p>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p> <p>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b>광주영아일시보호소</b></p> <p>상담 문의 062)222-1095, 1096</p>	<p><b>대명OA</b></p> <p>취/급/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사기</li> <li>컴퓨터</li> <li>FAX</li> <li>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li> <li>전산소모품</li> <li>레이저(토너/드럼)</li> <li>카드리지</li> <li>각종 인크류</li> <li>복사용지</li> <li>팩스용지</li> <li>판매</li> <li>임대</li> <li>A/S</li> </ul> <p><b>T.375-5880</b></p>	<p><b>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b>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p> <p><b>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b>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p> <p><b>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b> <b>지금 연락 주세요!!</b></p> <p><b>062)719-3380, 010-8678-4638</b></p>	<p>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p> <p><b>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b></p> <p>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p> <p>[급매전문] <b>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b> 대표공인중개사대표 <b>유재관 010-6495-3787</b>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p>